

##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커피 2잔·빵 1개 시켰는데도 ‘1인 1음료’...카페 규정 두고 갑론을박	사회	
2	JTBC,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추진	경제	
3	李, ‘내년 교황 방북’ 피스메이커 구상 재가동... “두드리면 열릴 것”	정치	

### [1]기사/뉴스요약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1인 1음료 주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친구 두 명과 함께 카페에 가 커피 2잔과 빵을 주문했는데, 카페 주인이 인당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사람의 커피 대신 빵을 주문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아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금액을 지불하려 했음에도 업주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카페 업주가 ‘1인 1음료’ 원칙을 유지하는 데에는 매장 운영상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페의 주요 수익원은 음료, 특히 커피”라며 “커피는 원두와 물, 우유 등을 활용해 재료비 대비 마진율이 높은 편이지만 빵이나 베이커리류는 재료비 비중이 높고 외부 납품을 받는 경우도 많아 수익성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업주 입장에서는 빵보다 음료 판매가 매장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좌석과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성격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A씨는 “여러 명이 방문하면 인원수만큼 주문을 받아야 임대료, 인건비, 냉난방비 등 매장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업주들이 있다”며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이후 다른 손님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빵은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먹기 쉽지만, 음료는 개인별 소비가 일반적”이라며 “업주 입장에서는 3명이 방문해 음료 2잔과 빵 1개를 주문하는 상황을 좌석 이용 대비 매출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장 규칙이 1인 1음료라면 따르면 된다”, “업주가 정한 운영 방식이고 맞지 않으면 다른 카페를 이용하면 된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빵 가격도 적지 않은데 음료만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짜장면 두 개에 탕수육을 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니냐”며 “빵이 4000~5000원 이상이면 충분히 비용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가 커피 매장은 운영상 1인 1메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격대가 높은 카페라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기사/뉴스요약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그룹 계열사 JTBC가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12일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 규모의 회사채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중앙그룹의 모체인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사적으로 협의해 채무조정, 구조조정 등을 하는 절차다.

JTBC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계열사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4개 사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등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NICE신용평가는 이날 JTBC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D’로,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CP) 등급을 ‘C’에서 ‘D’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D’는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부도 상태를 뜻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등급을 ‘BB’에서 ‘B’로 내리고 등급 감시 목록(하향 검토)에 포함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JTBC 유동성 위기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과정의 중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어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3) 기사/뉴스요약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남북 대화 재개, 한반도 화해 차원에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교황의 방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구상을 재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레오 14세 교황과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겸 국무원장을 각각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교황님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교황과 30분간 면담한 자리에선 남북 관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서 천주교의 기여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천주교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표시했다”며 “이에 대해 교황의 호응하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파롤린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화 노력에 대해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황의 방북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 성사는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바티칸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으면서 방북이 무산됐다. 유 추기경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교황이 미국인이다.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에게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한국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조각상에 대해 “성경 속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한 조각 작품”이라며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남한을 적대시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